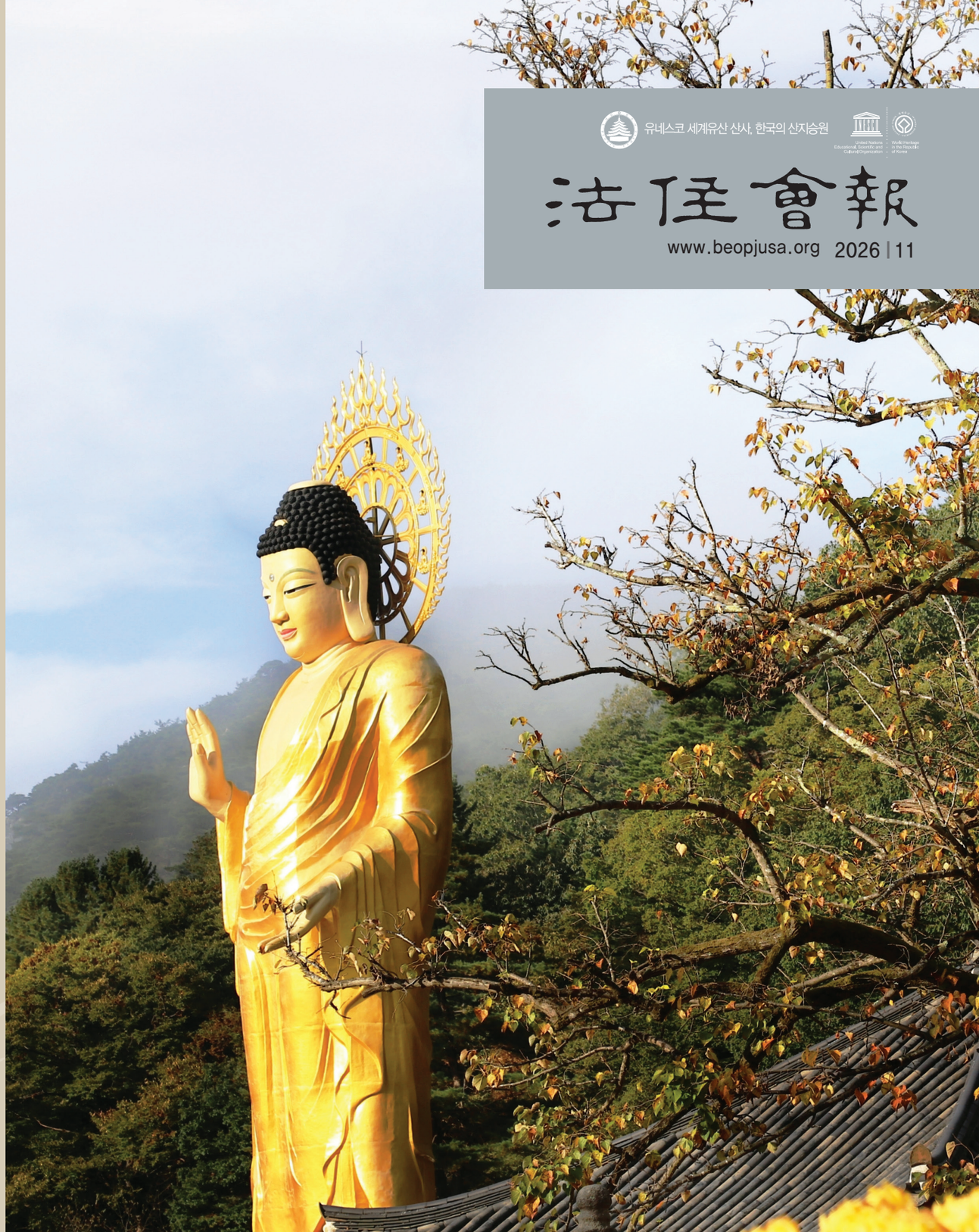
동안거 백일기도



거룩한 삼보전에 귀의합니다.
낙엽이 지고 날씨가 쌀쌀해지는 결실과 정진의 계절을 맞이하여
신도님 각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안거安居는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출행을 삼가고 백일동안 수행에만 전념하는 거룩한 전통입니다.
우리 재가불자들 또한 선방의 스님들과 함께 하여 부처님전에 동안거 기간 동안
백일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동안거 백일기도에 신도님들 널리 동참하시어
기도하고 정진하는 삶,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며
그러한 공덕으로 다생의 업장을 모두 소멸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서원을 원만하게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일정 : 2026년 **11**월 **23**일 (월) ~ 2027년 **2**월 **21**일 (일)
(병오년 음력 10월 15일부터 정미년 음력 1월 15일까지)
동참보시 : 한가족 **20**만원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예금주 : 법주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6 | 11



구정九鼎 선사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 월정사月精寺는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자장 율사가 세운 사찰이다. '월정'이란 이름은 동대산 만월봉에
떠오른 보름달이 유난히 밝아서 붙여진 것이라 한다.
동관음암은 오대 중에 동대산 만월봉 아래에 관음보살을 모신 암자이다.
자장 율사와 관련되지만 160년이 지난 성덕왕 때 보천寶川태자가
원통사를 짓고 수행하며 시작되었다.

그 후에 신라말 무염(無染 801~888) 선사가 머물 때 구정 선사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신라 말 홀어머니를 모시고 비단행상을 하는 청년은 어느 날 명주(강릉) 땅을 가다가 대관령 중턱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길가에 서서 꼼짝 않고 있는 노승을 만나게 되었다. 청년은 하도 이상해서 노승에게 물었다.
"스님 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중생들에게 공양을 드리고 있지. 옷 속의 이와 벼룩이 피를 먹고 있다네"
그 말에 감명받은 청년은 자신도 수행하여 스님과 같은 큰 선사가 되겠다고 하고 노승을 따라 도착한 곳이
동관음암이었다. 노스님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제자로 받아 주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나무하고 밥하며 스님 시봉하면서 3년이 흘렀다. 그동안 기다려도 법문 한 구절
가르쳐 주지 않자 어느 날 노승에게 "무엇이 불법입니까?" 하고 물었다. 노승은 아무 대답 없이
부엌에서 무너진 가마솥을 걸으라고 했다. 스승의 말에 엄동설한임에도 흙을 파서 찬물에 이겨 솥을 걸었다.
그러나 노승은 솥이 기울었다 하여 다시 걸으라 했다. 하루 종일 고쳐놓으면 스승은 와서 이쪽이 잘못됐다
하면서 지팡이로 솥은 무너뜨리고 다시 걸으라고 했다. 저녁 내내 솥을 걸어놓으면 스승은 밤새 와서 발로
밟아서 기울여 놓고 다시 걸으라고 했다. 솥을 9번이나 걸고 나서야 마침내 스승의 인가를 받았다.
"이제야 솥을 바로 걸었다. 인욕과 하심이 없으면 수행을 할 수 없느니라. 진리를 위하여 물러서지 말고
정진하라. 솥은 몸과 같은 것이니 항상 행동과 말과 생각을 바르게 하라" 하셨다. 그리고 머리를 삭발하고
구족계를 받고 9번 솥을 걸었다 하여 구정九鼎이라고 법호를 주었다. 그때의 노스님은 통일신라의
선지식 무염無染 스님이었다. 자신의 마음을 늘 낮추는 겸허한 마음이야말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수행자의 참된 모습이기에 구정 선사의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두고 수행자 사이에서 귀감이 되며
회자되는 참된 법문이다. 동관음암 뒷산인 만월봉 옆에는 구정 선사가 나무하던 구정봉이 있다. 구정봉을
오르다 보면 솥을 걸기 위해 흙을 팠던 '흙구덩이 터'가 있고 조금 위에는 도를 깨쳤다는 '좌선대'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6 11 | 통권 418호



2 **벽화 이야기** 구정선사
4 **이달의 법문** 마음을 비워 진리를 밝히다 大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6 **주지스님 법문** 마음의 자유를 찾아서 정덕스님
8 **수행여화** 묘猫하게 다정하네 현진스님
11 **경전 구절 산책** 마음과 시공時空의 전개 원경스님
14 **인도 건축 미술 순례** 독수리봉에서 보리수 아래로 안필섭
17 **大법주사 템플스테이**
18 **大법주사 공양미 / 大법주사 행사 일정**
19 **大법주사 소식**
20 **광명진언기도 / 초하루신중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미륵재일기도 / 지장재일기도 / 생일불공**
21 **大법주사 미륵반가사유상 개금불사 안내**
22 **승려복지 후원 안내**
23 **병오년 동지기도 접수 안내**
24 **동안거 백일기도**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70(단기4359)년 11월호 통권 418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보은 라 00002)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인 · 정덕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大법주사

동안거 결제 법문

마음을 비워 진리를 밝히다

지명 대종사 大법주사 조실

大법주사의 산문을 감싸는 바람이 한층 차가워지고, 속리산의 나뭇잎들이
스스로 몸을 내려놓는 계절입니다. 이 고요하고 적막한 겨울의 초입에서 우리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동안거 결제를 맞이합니다. 한해의 마지막을 지나 새해를 기다리는 동안거는
수행자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동안거는 단순히 추위를 피해 방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번뇌를 녹이는 정진의 장입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세상이 적막해질수록,
진리를 구하려는 수행자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집니다. 세간의 분주함과 따뜻함을 뒤로하고
스스로 겨울의 고요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 결단이 곧 정진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마음이 하나이면 모든 일이 쉬워지고, 마음이 둘이면 어려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결제에 임하는 수좌대중과 불자 여러분은 이 한 생각을 바르게 모아 화두를 단단히 쥐어야합니다.
수행은 화려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며 처음 도를 구하고자 했던 그 청정한 초심으로 돌아가
선지식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삼독의 번뇌는 자연히 시들어 사라집니다. 무릇 세상 모든 존재는 머무름이 없고 변화하니,
이를 깨닫는 자는 헛된 집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과 성냄을 관조하여
비워낼 때, 본래 지닌 청정한 불성이 드러납니다. 세월은 유유히 흐르고 남은 시간은 줄어드니,
수행자는 이 무상함을 외면하지 말고 정진의 채찍으로 삼아야 합니다. 게으름과 방일을 떨쳐내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 참된 수행이요 해탈의 지름길입니다. 선방에 앉아 지내는
석 달의 정진은 신심과 원력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큰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한 걸음씩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지속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괴롭히던 번뇌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는 고요한 자리를 증득하는 것이 지혜의 꽃입니다.
일상 속에서 정진하는 재가 불자님들 역시 마음의 산문을 닫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출가 수행자와 같이 선방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계를 지키고 자비를 행하면
그것이 안거입니다. 남의 허물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보고 다스리는 것이



보살 수행의 본분입니다. 베푸는 마음은 나를 풍요롭게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등불이 됩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바로 아는 자타불이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보듬어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지성스러운 기도와 청정한 공양은 도량을 맑히고
수좌의 정진을 받쳐주는 큰 힘입니다.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목탁소리는 생사윤회의 허망함을 깨우치는 부처님의 법음입니다.
한 잔의 따뜻한 차를 마시고 바람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도 진리는 늘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세속의 추위는 옷으로 막을 수 있지만, 마음속 무명의 어둠은 오직 지혜의 빛으로만 밝힐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수행의 참된 시간은 항상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나의 바른 언행과 자비로운 마음 씀이 내일의 맑고 향기로운 과보가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조용하고 담백한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성찰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속리산 깊은 산중의 고요한 품속에서 천년을 이어온 정법의 맥박이 지금도 선명하게 뛰고 있습니다.
수좌스님들의 한 호흡의 기운과 재가불자님들의 서원이 모여 청정도량을 이룹니다.
부처님은 밖에서 나를 구해주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 가장 깊은 자리에 계십니다.
내 안의 부처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닦아 귀의할 때, 우리의 삶은 매일 새롭게 피어납니다.
이 겨울 동안거 정진을 통해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본래의 맑은 자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바람 속에서도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이에게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고 깊어집니다.
매 순간 초심으로 돌아가 바르게 정진하십시오. 그 바른 정진이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불자님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가 항상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자유를 찾아서

정덕스님 大법주사 주지

우리는 눈 · 귀 · 코 · 혀 · 몸과 마음이라는 여섯 가지 문(六根)을 통해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고, 싫은 것을 보면 밀어내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분노와 불안이라는 번뇌의 파도에 휩쓸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조단경六祖壇經》에서는 이러한 삶의 고통과 집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길잡이를 제시합니다. 혜능스님은 종교적 의례나 경전의 암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본성(自性)을 바로 깨닫는 직지인심直指人心의 길을 설파하셨습니다.
지난 10월호에서는 자성自性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청정한 자성을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혜능스님은 자성에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수행 지침으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무념無念을 체體로 하고, 무상無相을 종宗으로 하며, 무주無住를 본本으로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번 11월에는 세 가지 가르침 가운데 무념無念을 관념적 철학이 아닌,
구체적인 생활의 언어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무상無相과 무주無住는 다음 호에
각각 순차적으로 게재하고자 합니다.
무념無念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물들지 않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념無念'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
혹은 돌이나 나무처럼 무감각해지는 상태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념은 그러한 단멸斷滅의 경지가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명의 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생각하고, 위험하면 피할 길을 궁리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기능인 것입니다.
따라서 무념에서의 '무無'는 생각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의

일반적으로 '무념'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
혹은 돌이나 나무처럼 무감각해지는 상태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무념은 그러한 단멸斷滅의 경지가 아닙니다.
무념에서의 '무(無)'는 생각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의 흐름에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흐름에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無念 수행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꾸지람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억울함, 분노,
자존심 상함이라는 거친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생각과 완전히
한 몸이 되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라며 분노를 증폭시키며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잠시 멈춤(Pause) 버튼을 누르고 생각을 객관화할 것을 제한합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 생각을 마치 강가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보듯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더럽히지 못하듯, 찰나에 일어나는 분노의 생각이 나의 본래 청정한 마음을
더럽히지 못함을 아는 것이 바로 일상 속의 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에 휘둘려 괴로움의 연쇄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념이 주는 자유가 아닐까요. 오늘 하루, 문득 마음이 복잡하고 힘겨울 때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생각에 물들어 있는가?"

이 깊은 가르침과 함께, 오늘 하루도 무념의 청정한 마음으로
가볍고 자유로운 발걸음 내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묘猫하게 다정하네

현진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우리 절 반려묘 '마돌이'가
어디로 갔는지 불러도 보이지 않는다.
목에 방울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근처에 있으면
달랑달랑 소리가 들릴 텐데 아마도 절 밖으로
나갔나 보다. 세상에 한창 관심이 많을 때라
이웃 동네까지 건너가진 않았는지 걱정이다.
마돌이는 '마야사 도량을 맘껏 돌아다녀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부여했다. 아직 생후 7개월째 접어드는
어린 반려묘라서 마당에 풀어 놓으면
모든 게 신기하여 사방팔방 노닐고 있다.
고양이 집사들이 '수고양이는 중성화를 하면
집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수술을 마쳤음에도 아직은 호기심이 왕성하여
그런지 한곳에 오래 앉아 있는 걸 못 봤다.
틈만 나면 구석구석 헤집고 다니며 사냥놀이를
연습한다. 나비를 잡겠다며 뛰어오르기도 하고
지나가는 개구리도 건드리며 놀기도 한다.
얼마 전엔 새끼 뱀을 물고 와서 주인을
부르고 있기에 깜짝 놀랐다. 이런 본능을
벌써 발휘하기에 대견스러워 앞으로
더 큰 뱀을 잡아 오라 칭찬했다.
우리 도량에 뱀이 자주 출몰하여 고양이가
그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기 때문이다.

마돌이와의 인연은 올해 사월 초파일 무렵
어느 식당에서 비롯되었다.
때마침 그곳을 드나들던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며 주인장이 한 마리 분양해가길
부탁했다. 작년 이맘때 여기 정원 한쪽에서
울고 있는 간난 고양이를 구조하여
두어 달 키우다가 다른 이에게 입양한 적이 있기에
선뜻 내키지 않았으나 그 신비로운 눈망울을
외면하지 못하고 데려오고 말았다.
그날 이후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방에서 함께 지내며 시간을 보냈다.
일찍이 고양이를 재워본 적 없는 나로서는
전혀 새로운 경험이며 기쁨이었다.
아침마다 배고프다며 칭얼대는 소리도 귀엽고
눈을 마주치며 내 곁에서 들려주는
'골골송'도 반가웠다. 무엇보다 구름보다
부드러운 털과 쫑긋 솟은 귀, 젤리 같은 촉감의
발바닥이 좋았다. 비로소 반려묘 가진 사람의
취향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실내에서만 활동하길
바라지 않기에 6개월째부터는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낮에는 마음껏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이유 없는 만남이 없기에 무엇이든 그 인연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일.
이제는 정이 들어 누가 데려가겠다 간청해도
그 뜻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햇볕 쬐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앙증스러워 자주 만져주고 싶은데 강아지처럼 냉큼 다가오지 않아서
서운할 때가 더러 있다. 그렇지만 무심하고 도도한 그 행동이 고양이의 매력이라 어쩔 수 없다.
일찍이 이런 적 없었는데 홀로 있는 시간이 되면 마돌이가 있어서 무료하거나 쓸쓸하지 않게 되었다.

밤에는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오는
적응 훈련을 서서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기에
동네방네로 이름을 부르며 찾았는데
영 소식이 없었다. 그러다가 삼 일째 되던 날
아침에 다리를 질질 끌며 문 앞에 나타났다.
동물병원에서 좌측 뒷다리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다.
뼈가 조각날 정도로 부서진 상태라 고정핀을
다섯 개 박았고, 퇴원하여 아물 때까지
거의 한 달여 독방에서 감금 생활을 했다.
그랬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놈이 이렇게 신나게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감금 해제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뒷다리는 잘 완쾌되어 걷는 데는
이상 없으나 또 다칠까 봐 신경이 쓰인다.
아직은 조심해야 하는데도 밖으로 나가겠다고
애절한 목청으로 '야옹, 야옹' 하면 안쓰러워
문을 열어주고 있다. 이런 사연이 있기에
저녁이 되어도 보이지 않으면 어디서
사고당할까 봐서 이름을 부르며 찾는 것이다.
주변에는 영역 다툼이 잦은 길고양이들이 많아서
안전하지도 않다.
나는 개를 몇 번 키운 적 있어도
고양이와 오래 지내보기는 처음이다.
고양이는 대소변을 잘 가리며 하루에도
몇 번씩 몸단장(그루밍)을 하므로 씻기지 않아도
청결하다. 그리고 사람에게 치근대지 않으며
사뿐사뿐 걸음을 옮기기에 언제 다가왔는지
모를 때도 있다. 또한 스스로 먹는 양을
조절하기에 자율배식이 가능한 동물이라서
반려견보다 반려묘를 선호하는 이가 많다 들었다.
마돌이와 나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기에
이렇게 만난 것일까. 아마 과거 생 어느 때에
동일한 공간에서 온정을 나누며 친절을 베풀던
도반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땐 우리 마돌이가 사람이었고 내가 고양이였을까.
이렇게 따져보면 가벼운 인연은 없고
무연한 관계도 없다. 그 어떤 만남이든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유 없는 만남이 없기에 무엇이든 그 인연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일.
이제는 정이 들어 누가 데려가겠다 간청해도
그 뜻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햇볕 쬐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앙증스러워 자주 만져주고 싶은데
강아지처럼 냉큼 다가오지 않아서
서운할 때가 더러 있다. 그렇지만 무심하고
도도한 그 행동이 고양이의 매력이라 어쩔 수 없다.
일찍이 이런 적 없었는데 홀로 있는 시간이 되면
마돌이가 있어서 무료하거나 쓸쓸하지 않게 되었다.
칠흑의 밤이 되면 온통 적막강산이 되는
이 도량에 숨 쉬는 생명이 곁에 있다는 것이
이토록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몰랐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내 식구가 되면 서로 교감하며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는 모양이다.
요즘, 이 녀석 때문에 매일 '묘猫'하게
다정한 날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이 글을 마칠 때쯤 가까이서 방울 소리가 들린다.
녀석이 별일 없이 귀가했다는 신호다.

●●경전 구절 산책

마음과 시공時空의 전개

원경스님 大법주사 강주

불교의 우주관은 유심론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다.
원효스님이 오도송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소멸한다"에서 말한 것처럼,
일체 만법을 거두어들이면 하나의 심체로 돌아가고, 마음을 펼치면 온갖 종류의 만법이 전개되는 것이다.

우주법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현대 서양 우주물리학은 빅뱅(Big Bang),
즉 대폭발 이론으로 우주 생성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태초에 우주는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무형의
블랙홀(Black Hole) 상태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상태에서
어느 순간[대략 137억 광년 전] 대폭발 즉,
빅뱅이 일어나 팽창우주가 전개되었다는 것이
현대 우주론의 일반적인 정설이다.
동양의 우주관은 서양과는 확연히 다르다.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 무극無極의 상태에서
홀연히 음극과 양극이 분화하는 태극太極 상태가
만들어지고, 다시 음극과 양극에서 각각 음과 양이
분화하여 오행五行이 벌어지면서 우주가
생성 전개되었다고 본다. 불교의 우주관은
유심론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다.
원효스님이 오도송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소멸한다
(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種種法滅)"에서
말한 것처럼, 일체 만법을 거두어들이면 하나의
심체心體로 돌아가고, 마음을 펼치면 온갖 종류의
만법萬法이 전개되는 것이다. 마음 그 자체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을
펼치면 삼천대천세계 삼라만상이 구현되는 것이다.
《법화경》, 〈화성유품〉 제7에서 석존은
과거 대통지승여래께서 멸도滅度하신 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지 비유로 설하고 있다.

"여러 비구여, 부처님이 멸도하신 지가
매우 오래되었으니, 과연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렀는지 상상조차 어렵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땅을
잘게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다고 하자.
그것을 가지고 동방으로 날아가다가 일천의
국토를 지나면서 그곳에 극히 작은 한 티끌의
가루를 떨어뜨리고, 또다시 일천의 국토를
지나 한 점을 떨어뜨린다고 하자.
이와 같이 계속 날아가면서 일천의 국토마다



가루 한 점씩을 떨어뜨려서 가지고 있던 모든 티끌을
소진하였다고 치자. 과연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국토를 지나왔는지 그대는 과연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 비구여, 이번에는 이 사람이 날아서 지나간
국토 가운데, 한 티끌이 떨어진 국토와 티끌이
떨어지지 않은 모든 국토를 모아서 잘게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다고 하자. 이제 그 한 티끌을
일 겁이라 가정할 때, 대통지승여래께서
멸도하신 지는 이 숫자보다 더 오래되었으니,
한량없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백천만억 아승지겁을
지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래가 지닌
지혜[知見]의 힘으로, 그 아득히 먼 옛날의 일을
마치 오늘의 일처럼 훤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법화경》의 진점겁塵點劫 비유는 시간과 공간의
무한한 경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시간이 아주 길다는
말과 공간이 매우 넓다는 추상적인 말을 상상이
가능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
이 비유라고 하겠다. 비록 여기에서는
대통지승여래 열반 후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비유에서는 공간적인 개념을
들어 무한대의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진점겁을 통해 그려지는
시공의 세계는 여전히 인간의 인식으로
헤아릴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

존재의 본질에 돌아가면 마음 자체에는
어떤 시간적 · 공간적 개념조차 성립할 수 없다.
절대적 공空의 차원에서 홀연히 한 생각이
현상세계로 나오는 순간 중생의 에고(ego)가
작동하면서 '나'라는 주체가 생겨나고,
이어서 나와 상대적인 객체로써 온갖 만법이
생겨난다. 이에 나와 너 사이에 공간이 생겨나고
그 공간을 좁히는 과정에서 시간이 생겨난다.
따라서 상대적인 시간과 공간은 이기적 자아인
'나'가 가상 현실로 만들어낸 허상인 것이다.
다시 '나'라는 개별적 자아가 본래 없다는 무아를
깨닫는 순간[我空] '너'라는 상대적인 만법도 동시에
소멸되어[法空]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
본체로 돌아가게 된다.
의상스님은 〈법성게〉에서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여럿 가운데 하나가 있어,
하나가 바로 일체요 여럿 또한 하나이네.
한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를 머금었고,
모든 티끌마다 온 우주가 담겨있네.
한량없는 긴 세월이 바로 한 생각이요,
한 생각이 또한 바로 한량없는 세월이네.
구 세와 십 세가 서로 겹쳐져 있는 듯하나,
어지럽지 않고 조화롭게 따로따로 나투네.
一中一切多中一　一卽一切多卽一
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
無量遠劫卽一念　一念卽是無量劫
九世十世互相卽　仍不雜亂隔別成

일체의 만법을 수렴하여 궁극의 본체로 돌아가면
절대 하나인 대생명과 대광명 에너지만 존재한다.
이것을 굳이 말하자면 진여眞如 · 법신法身 ·
자성自性 · 불성佛性 · 열반涅槃 · 참마음 ·
여래장如來藏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금강경의 논법을 빌리자면,
진여는 진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진여라고 한다.
진여라는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상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벌어지면서, 삼차원의 가상공간에서
탐진치를 일으켜 중생 놀이를 하며 고통받는다.
반면 불보살님은 영원한 생명 에너지를
육바라밀로 펼쳐 중생을 교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면서도 절대 행복한 열반의 상태를 유지한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수렴하고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참마음은 공하지만 동시에
육바라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현실 세계에 펼칠 때 존재 이유가 실현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삶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바로 마음에 달려있다.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한 행복의 파랑새는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 불보살님이 보리심으로
살아갈 때 그 길에는 늘 행복이 동반한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시간과 공간을 전개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독수리봉에서 보리수 아래로

안필섭 보살사 불학연구원장

칠엽굴을 뒤로하고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에도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는 한 구절이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산 아래 광장으로 내려오니 솜사탕을 얻어먹은 꼬맹이들은 그새 다시 좌판 앞으로 돌아가 있었고, 왕초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곧 라즈가 차를 대고 나타났고,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 빔비사라 왕의 감옥 터로 향했다.

웨누와나를 승가에 내어 주며 부처님을 각별히 모셨던 빔비사라 왕은 말년에 아들 아자따샤뜨루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이곳에 갇혔다고 전한다. 아침에 들렀던 스뚜빠의 주인이 바로 그 아들이다. 하루 사이에 아버지가 보시한 정사와 아들의 탑,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가둔 감옥을 차례로 지나온 셈이다. 감옥 터라고 해야 낮은 돌담이 네모나게 둘러진 메마른 빈터가 전부였고, 그 가장자리로 붉은 돌을 깔아 만든 길이 나 있을 뿐이었다. 빈터 너머로는 뿌연 안갯속에 산줄기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전승에 따르면 왕은 감옥의 작은 창 너머로 영취산 쪽을 바라보며 그곳에 계신 부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달랬다고 한다. 《관무량수경》의 이야기도 바로 이 비극에서 시작된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터가 오히려 무겁게 다가왔다.

영취산에 오르는 방법은 두 가지다. 로프웨이를 타거나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로프웨이로 올라가고 걸어서 내려오기로 했다. 여덟 명 정도가 한 대에 함께 타고 올라가니, 정상에는 커다란 스뚜빠와 함께 하얀 사찰이 자리하고 있었다. 일본의 어느 절에서 세운 평화의 탑과 사찰이다. 혼잡하다고 느낄 정도로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넓은 정상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우리는 기념이 될 만한 사진만 몇 컷 찍고, 하산길에 있는 진짜 영취산 독수리봉으로 향했다.

그렇게 북적이던 정상과 달리 하산길은 사람이 거의 없어 한적했다.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로프웨이를 타고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는 전망을 즐기러 이 산을 찾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 산의 백미는 독수리봉에 있다. 사람들이 이를 모른다는 것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덕분에 호젓하게 산길을 즐기며 부처님께서 가장 아끼셨다는 장소 가운데 한 곳에 갈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으니 불만은 없었다. 내려가는 길 중간에는 커다란 바위 아래로 움푹 들어간 굴이 있었다. 안쪽 바위는 금빛 천으로 덮여 있었고, 그 앞에 꽃과 촛불이 놓여 있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머물며 수행했다고 전하는 굴이다. 비좁은 바위 밑에 몸을 들이고 정진했을 옛 수행자들을 떠올리니 칠엽굴 앞에서의 감회가 다시 살아났다. 계단을 따라서는 티베트 순례자들이 내건 오색 깃발 타르초가 길게 이어져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영취산의 산스크리트 이름은 그리드라꾸따(Gṛdhrakūṭa), 곧 '독수리 봉우리'다. 봉우리의 바위가 독수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는데, 사실 어느 부분이 독수리를 닮았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기념사진을 찍고 보니 우리 뒤에 비스듬히 솟은 뾰족



영취산 독수리봉 (필자 제공)



보드가야 분황사에서 본 마하보디 사원 (필자 제공)

한 바위가 독수리 부리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이름의 주인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독수리봉에는 이렇다 할 시설물이나 간판도 없이 붉은 벽돌로 쌓은 작은 향실 터 하나가 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머무시던 간다꾸띠(Gandhakuṭī)의 자리다. 기단 둘레에는 오색 불교기가 둘러져 있었고, 그 위에는 순례자들이 올린 공양물과 흰 천이 놓여 있었다. 이곳에서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인 《법화경》과 《반야심경》을 설하셨다고 하니, 불교 신자라면 가 보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단체 순례객들이 이곳을 찾으면 작은 법회를 열어 성지에서 받은 감동을 기념하곤 해서, 이 좁은 자리가 사람으로 가득 찬 사진도 많이 돌아다닌다.

하지만 우리가 찾았을 때는 붉은 가사를 입은 티베트 스님 몇 분이 기단 옆에 둘러앉아 경을 읽고 있을 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그 낮은 독경 소리를 들으며 향실 터 앞에서 삼배를 올리고 잠시 시간을 보냈다. 독수리봉은 산의 남쪽 사면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라즈기르 시내가 보이지 않고, 사방을 산이 둘러싸고 있어 바깥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자리가 독수리봉에서 수행과 사색이 이루어진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다. 산을 내려오니 룸비니에서부터 쉬지 않고 이어 온 순례에 몸은 제법 지쳐 있었지만, 오늘 안에 가야 할 곳이 아직 남아 있었다.

우리는 라즈와 함께하는 마지막 길에 올랐다. 목적지는 보드가야(Bodhgayā)였다. 부처님께서 깨달음

을 이루신 곳, 이번 순례에서 가장 오래 마음에 품어 온 곳이다. 두 시간 남짓 달려 '대한불교조계종 분황사'라는 한글 간판이 걸린 대문 앞에 차가 멈춰 선 것은 늦은 오후였다. 인도 땅 한복판에서 한글 간판을 마주하니 반가움이 먼저 앞섰다. 간판에는 한글 옆으로 'SATI ARAMA', 'SATI SCHOOL'이라는 영문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사띠(sati)는 알아차림, 곧 염念이고, 아라마(ārāma)는 승원이 들어선 동산을 이르는 말이니 '알아차림의 동산'인 셈이다.

짐을 내리고 나니 라즈와 헤어질 시간이었다. 우리는 네팔 번호판을 단 그의 은색 승용차 앞에 셋이 나란히 서서 마지막 사진을 한 장 남겼다. 룸비니를 떠나 치트완을 거쳐 꾸쉬나가르와 바이샬리, 빠뜨나와 날란다, 그리고 라즈기르까지, 그는 우리의 발이 되어 부처님의 마지막 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왔다. 밤이 되면 알아서 잘 곳을 찾는다며 한 번도 우리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던 그였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팁을 건넸다. 그는 이제 다시 먼 길을 달려 네팔로 돌아갈 것이다. 멀어지는 차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분황사 주지 붓다빠라 스님께 인사를 드렸다. 스님은 먼 길을 온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시고, 부부인 우리에게 각자 방을 하나씩 내어 주셨다. 성지에 왔으니 저마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이었을까. 신혼여행 중에 방을 따로 쓰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 배려가 오히려 고마웠다.

방에 짐을 푸는 사이 금세 해가 졌다. 위층 복도로 나서니 하늘은 어느새 어둑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런데 낮은 벽돌집 지붕들 너머로 주황빛 조명을 받은 탑 하나가 어둠 속에 떠올라 있었다. 마하보디(Mahābodhi) 사원이었다. 이번 순례에서 가장 오래 그려 온 곳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다. 분황사 간판과 마하보디 대탑이 한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대웅전에 들어서는 순간에는 이곳이 인도라는 사실을 잠시 잊었다. 천장과 기둥에는 한국 절집의 단청이 입혀져 있었고, 화려한 닫집 아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 계셨다. 그 양옆에는 두 제자가 합장한 채 서 있었다. 칠엽굴에서 결집을 이끈 마하까샤빠와 스승의 가르침을 송출한 아난다다. 사방 벽에는 부처님의 일생을 담은 불화가 둘러져 있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땅에서 한국의 단청과 불화로 장엄한 법당을 마주하니 감회가 남달랐다.

분황사는 스님의 원력으로 작게 시작해 지금은 넓은 부지에 여러 전각이 들어선 도량이 되었다. 이곳에서는 인도인 스님들을 길러 내고 있었고, 마침 그들을 위한 가사불사가 한창이었다. 천삼백여 년 전 신라의 스님들이 날란다로 구법의 길을 떠났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 그 길을 거꾸로 되돌려 갚고 있는 셈이다.

그날 분황사에는 델리대학교 철학과 학생들이 단체로 머물며 스님의 강의를 듣고 있었다. 밤이 되자 탁 트인 강당에서 흰 숄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쓴 학생들이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그 뒷모습이 마치 안거에 든 수행자들 같았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학생들과 함께 마하보디 사원으로 참배를 가기로 했다. 방에 홀로 누워서도 지붕 너머로 보았던 주황빛 탑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저 탑 아래 보리수가 서 있을 것이다. 칠엽굴에서 독수리봉을 거쳐 보리수가 보이는 곳까지, 길고 긴 하루가 그렇게 저물었다.

23·24·25년 3연속 최우수 템플스테이

속리산 大법주사

마음을 비우다 쉼 마음을 채우다



당일형
- 108 염주 or 단주 만들기
- 세조길 걷기 명상

휴식형
- 大법주사 문화재 둘러보기
- 저녁/새벽예불
- 세조길 걷기 명상

주말 체험형
- 선명상 (1박2일)
- 108 염주 만들기
- 수정봉 걷기 명상

명상 심화형
- 사유와 명상 (2박3일)
- 호흡, 걷기, 싱잉볼 명상
- 차담과 명상의 일상화

大법주사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

예약 및 문의전화 : 043-544-5656, 010-9528-5655



大법주사 공양미

신도님들께서 부처님께 정성으로 올리시는 大법주사 공양미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음성 미타사 밝은언덕 노인요양원 등으로 기부되어 아프고
힘든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비나눔의 실천에 함께하신 많은 신도님들의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길 발원합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라. 병든 이를 치료해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외로운 자를 위로해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섬기는 일이다.

2026. 11 大법주사 행사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9.22	2 23	3 24 관음재일	4 25	5 26	6 27	7 28 광명진언기도 입동
8 29	9 10.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10 2	11 3 신중기도회향	12 4	13 5	14 6
15 7	16 8 약사재일	17 9	18 10 6차 나한도량 성지순례	19 11 대입수능일 수능백일기도회향	20 12	21 13 다라니독송기도
22 14 소설	23 15 보름 동안거결제 동안거백일기도입재	24 16 미륵재일	25 17	26 18 지장재일	27 19	28 20 만공대선사다례
29 21	30 22	12월 1일에서 12월 3일까지 내부 정비공사로 원주실이 임시폐쇄됩니다. 이 기간중에는 전산사용이 어려우니 기도접수 원하시는 신도님께서는 사전에 접수 부탁드립니다.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7시 30분, 8시 / 대전지역 – 터미널 건너편 선샤인호텔 앞 오전 7시 30분, 8시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7시 30분, 8시

●●大법주사 소식



5차 나한도량 성지순례



진응당 월성대종사 추모다례제



창건1474주년 개산대재




가을국화향연 개막식


백미백락





산사의 미락



도민행복 숲속음악회





세계음식전시



10월 초하루법회


취봉당 덕운선사 다비식




◀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당선 석중스님, 각연스님)

국장임명
(사회 • 호법국장 심월스님)



광명진언기도 – 11월 7일 토요일 오후1시 대웅보전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릍타야 훔” 부처님의 대광명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의 빛을 관상하며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지혜를 깨닫는 진언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초하루 신중기도 – 11월 9일 월요일 오전10시 대웅보전 〈차량운행-보은/청주/대전지역〉

매월 음력 초하루부터 3일간 불보살님과 호법 선신들께 정성을 다해 예불공양을 올림으로써 한 달간의 평안과 성취를 기원하는 법회입니다. 매월 새로운 마음으로 선업을 닦고 복을 기원하는 신심의 발로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11월 21일 토요일 오후1시 대웅보전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힘으로 내 안의 모든 번뇌를 씻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소중한 서원을 성취하기 위한 진언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미륵재일기도 – 11월 24일 화요일 오전10시 미륵전

미래에 오실 미륵부처님의 자비로 현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 없는 평화로운 세상(용화세상)이 오기를 염원하는 기도로 매월 음력 16일 봉행됩니다.

지장재일기도 – 11월 26일 목요일 오전10시 명부전 〈차량운행-청주지역〉

매달 음력 18일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선망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업장소멸과 살아있는 가족의 안녕을 발원 기도입니다. 현재의 우리 삶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생일불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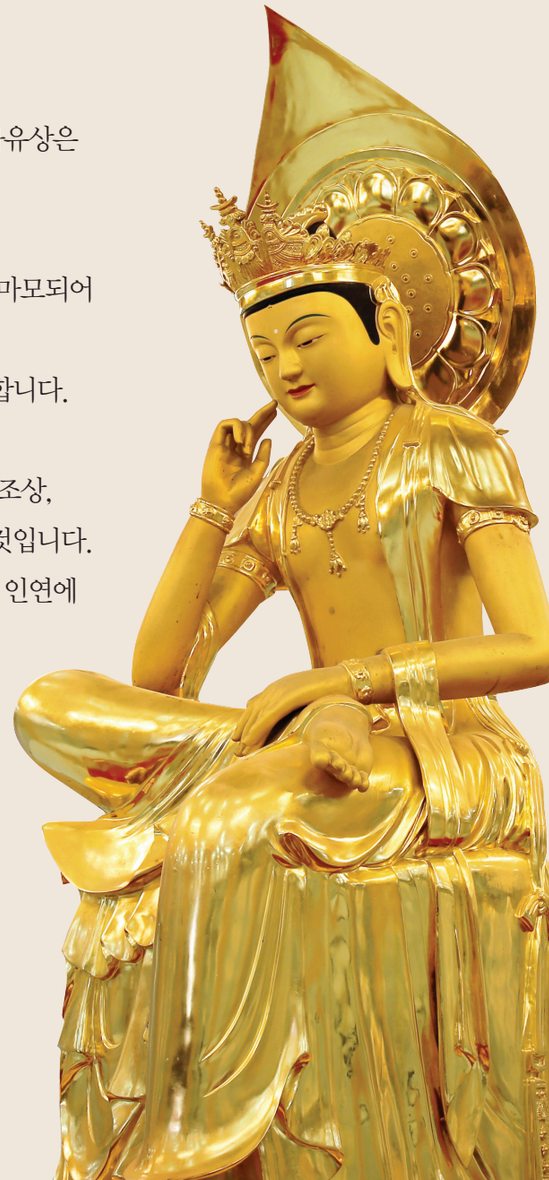
더없이 귀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좋은 기운을 채워 행복한 삶을 기원하기 위해 부처님께 축원올리시어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각 기도 동참보시는 2만원입니다.
- 기도는 전화 ☎ 043)**543-4755** 문자 • 카톡 **010-6732-0133으**로 사전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 당일은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 大법주사 기도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예금주 : 법주사)

大법주사 미륵반가사유상 개금불사 안내

“부처님께 새 옷을 입혀드리는 무량한 공덕의 불사에 인연을 맺으소서”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大법주사의 정신적 귀의처인 미륵전 내부의 미륵반가사유상은
오랫동안 수많은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기도와 발원의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흐르는 세월에 부처님의 금빛 안색이 퇴색되고 도포가 마모되어
금번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부처님의 형상을 새롭게
황금빛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改金佛事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몸에 금 한 조각을 올리는 정성은
법계의 지극한 공덕이 되어, 동참하신 불자님들과 선망조상,
그리고 후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무량복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세생생 삼대의 가족이 공덕의 보탑을 쌓는 이 거룩한 인연에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수희 동참을 발원합니다.



동참기간 2026년 **6**월부터
2027년 불사 원만 성취 시까지

불사동참 1인 1구좌 **10**만원

동참계좌 우체국 120-0001-36241 법주사

접수안내 大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010-6732-0133**(문자접수)**

승려복지 후원 안내

승보공양은 가장 법다운 불자의 진정한 선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승보공양 후원은 스님들이 노후나 병고의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 요양비, 수행비 등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관계없이 승보공양은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현재 35분의 교구스님께 신도님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전달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보공양을 모든 공양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승보공양은 스님을 가장 스님답게 모시는 불자의 진정한 선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자님들의 정성스러운 승보공양 동참은 불교의 수호와 홍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CMS 1인 1구좌 후원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기 후원이 아닌 일시 후원도 가능합니다.)

승보공양 후원 동참자

법주사 금오장학회 이방향 강혜숙 이시영 김순자 김규영 김창순 김귀옥 최규연 민혜숙
최성락 김태홍 박종금 김명숙 박근식 이은자 류소현 김부임 김길환 정윤곤 김완구
서현숙 윤공영 한경희 연용덕 안미영 박순식 김태원 김범기

승보공양 동참 안내 계좌이체 농협 351-1323-1288-03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병오년丙午年 동지기도 접수 안내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지冬至는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이날을 기점으로
점차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여 '새로운 양陽의 기운이 싹트는 날'이자 사실상의 새해 첫출발을
의미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에 저희 사찰에서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여법하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재앙을 소멸하며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동지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청정한 공덕을 지으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동지기도 봉행안내

- **기도기간** : 2026년 **12**월 **16**일(수) ~ **12**월 **22**일(화) 7일간
- **회향법회** : 2026년 **12**월 **22**일(화) 오전 10시 / 대웅보전
- **동 참 금** : 1가족 **3**만원
- **동지 팥 · 찹쌀공양 :** 동지 팥죽 준비를 위한 팥과 찹쌀 공양을 받습니다.

접수 및 문의

- **원 주 실** : 043-543-4755 / 010-6732-0133 (문자/카톡접수)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